

안녕하세요. 파급장입니다.

오랜만에 뽀글 아닌 나름(?) 국어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글을 씁니다.

뭐 이제 곧 6월 평가원이잖아요?

이제 뉴비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제 소개 잠깐 하면.....

6월 평가원까지는 국어 3 등급이었지만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및 18 수능 국어는 98점 백분위 99입니다.

이제 어마무시한 19 수능 국어가 있기에 초라하지만 봐주십쇼 ㅠㅠ

한마디로 **선천적 국어 재능층 이런거는 아닙니다.**

시간도 수능 땀 10초, 9평 땀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싹 다 2-3 등급입니다.

국어 풀다가 당황 타서 머리가 새하얘지는 화이트 아웃도
여러번 겪어봤고 국어는 항상 저를 떨리게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국어를 잘 보면 나머지 과목도 잘보고

국어를 못보면 다른 과목 싹 다 망치는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수험생 분들이 국어 때문에 연쇄작용으로
다른 과목들도 망쳤다고 하면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에 사설과 교육청 및 평가원 국어를 거치며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실제 18 수능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플랜들을 세웠습니다.

푸는 순서 (문학 --> 비문학 --> 화작문)

화작문에서 종이 넘기기 싸움하기 싫었고

문학은 몇 문장 안읽혀도 문제 풀기 쓰기 이고

비문학은 맨마지막에 두면 나중에 시간 쪼달려서 위험하고

화작문은 비문학 이후에 풀면 smooth 하게 풀려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순서로 풀면 저 같은 경우 문법이 다 맞아있으면
그 국어 시험은 성공이고 나머지 과목도 성공이었습니다.

18 수능과 18 9평 때 시나리오가 이대로 흘러갔고요.

플랜 A(시험 난이도 적당)

문학(20 분) --> 비문학(10 분, 10 분, 15 분) --> 화작문(20 분)

모르면 바로 바로 skip skip

나머지 5 분은 마킹 및 넘어간 문제 답내기

이 플랜은 18 9 평 때 적용했습니다.

플랜 B(시험 난이도 어렵)

문학(25 분)-->비문학(35 분)-->화작문(20 분)

화작문 때 15 분 배정하면 매우 위험위험

이플랜은 18 수능 때 적용 했습니다.

플랜 C(시험 난이도 쉬움)

문학(20 분)-->비문학(30 분)-->화작문(15 분)

나머지 시간은 검토

고 3 때는 이런일이 잘 없었습니다.

꽤 디테일 합니다.

이렇게 플랜을 여러개 세우셔야 수능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이미 예상한 수에 있다면

안심할 수 있어요. 국어 뿐만 아니라 수학과 이런 플랜 만들었습니다.

또한 초 6 부터 중 3 때까지는 외국에 있어서 고등학교 때

국어를 거의 처음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어가 고민이시더라도 가능성은

충분히 넘치기에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파급장의 국어 공부법

<https://orbi.kr/00018842422>

18 수능 국어 후기

<https://orbi.kr/00018889587>

저의 국어 공부 방법과 실제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저 위 두 개의 링크에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름 방학 때는 저 두 링크에 있는 내용도 약간의 수정을 가할 예정입니다.)

저 위 두 링크 내용을 요약하자면 (비문학 기준)

1. 지문의 유기적 독해로 이해를 우선시

2. 문단 번호 표시

3. 한 문단 끝날 때마다 중요정보 빠르게 옆에 좁은 공간에 정리 입니다.

이건 제가 수능 국어를 '준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때는 이상적으로 지문을 읽고 이상적으로 문제를 풀었죠.

연습 때는 그래야 하구요.

하지만 실전은 그리 순탄지 못합니다.....

18 수능 오버슈팅과 19 수능 우주론을 예로 들겠습니다.

솔직히 이 두 지문 배경 지식 아예 없이

그냥 독해력으로 뚫으려면 만만치 않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18 수능 오버 슈팅 저도 처음에 연습해간대로

유기적 독해로 뚫으려고 했습니다.

많이 연습했고 부호화 지문(정보 처리 및 이해) 과

목적론(견해 공통점 차이점 비교)에서는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버 슈팅은 현장에서 이렇게 하기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 때 나름의 배경지식을 이용했습니다.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수능 경제 택하신 분들이 보면 에이~ 저정도 가지고 경제를 안다고 할 수 있나 정도입니다.

금리 상승-----> 이자율 상승 -----> 저축 상승, 대출 감소 -----> 물가 상승률 감소

(저축하면 이율 높아서 \uparrow 오디, 대출하면 이자율 높아서 손해, 돈이 적게 풀리니 물가 상승률 감소)

금리 하락-----> 이자율 감소 -----> 저축 감소, 대출 증가 -----> 물가 상승률 증가

(저축하면 이율 낮아서 개선해, 대출하면 이자율 낮아서 \uparrow 오디, 돈이 많이 풀리니 물가 상승률 증가)

환율 하락 (우리나라 돈 가치 상승 1 달러=1000 원인게 1 달러=500 원으로 변함) ---->

수출 감소, 수입 증가 (우리나라 1000 원 짜리 물건이 미국에서 1 달러에서 2 달러로 변하니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 감소, 미국 1 달러 물건이 1000 원에서 500 원이 되니 수입 증가)

환율 증가 (우리나라 돈 가치 하락 1 달러=1000 원인게 1 달러=2000 원으로 변함) ---->

수출 증가, 수입 감소 (우리나라 1000 원 짜리 물건이 미국에서 1 달러에서 0.5 달러로 변하니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수출 증가, 미국 1 달러 물건이 1000 원에서 2000 원이 되니 수입 감소)

이걸 알고 있고 오버 슈팅 = 환율 폭등 이라고 생각하면 극악의 29 번도 풀립니다.
 (이거 답이 1 번이어서 저에겐 ㄱㅇc 이었습니다.)
 아마 이과분들도 경제 내신 공부를 하셨다면 저정도는 베이스로 깔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감히 제가 한마디 하자면 교수님들은
 고등학생이 저 정도의 배경지식은 있다고 가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 수능 우주론입니다.
 문과분들과 물리, 지구과학에 베이스가 없는 이과분들에게는 2,3,4 문단이
 정보량 폭탄으로 다가왔을 법한 지문입니다.

사실 이 우주관들은 고 1 때 배우는 통합 과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때 처음 배웠고요. 특히 티코브라헤의 절충설은
 지 1, 지 2 에는 안나오고 통합과학에서만 나옵니다.
 지 1 러들도 티코 브라헤 정충설을 듣기만 하고 실제 모형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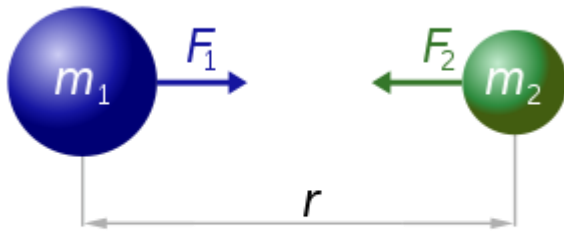
저는 위 저모형들이 머리 속에 이미 있습니다.
 저 모형들이 이미 머리 속에 있다면 2,3,4 문단은 flow 타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티코 브라헤의 절충설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태양과 달은 지구를 공전하고 나머지 행성들은 태양을 공전하는 것입니다.

Tmi 로 왜 이렇게 이상한 모형을 만들었냐면
 티코 브라헤는 눈이 매우 좋아 관측자료가 많았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지동설을 지지했으나....
 티코 브라헤는 교황청과 싸우기 싫었고
 연주 시차가 눈으로 관측하기 거의 불가능하기에
 이와 같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제자인 케플러는 스승의 자료를 물려받아 케플러 법칙 3 개를 만들어냅니다. 뉴턴은 케플러에게 케플러 제 3 법칙을 (공전주기 제곱 = 궤도의 장반경(긴바지름) 세제곱) 듣고 당연히 그러겠군이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는 만유인력 = 구심력 임을 이용하면 쉽게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시 뉴턴은 천재입니다.

만유인력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F_1 = F_2 = G \frac{m_1 \times m_2}{r^2}$$

뉴턴의 제 3 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위를 예시로 들면 m1 이 m2 를 끌어당기는 힘과 m2 가 m1 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②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이 때 물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많이 낡습니다. 이 선지는 물리 내신으로 뉴턴 법칙 할 때 학생들을 낡으려고 만드는 선지들의 대표적 예시입니다.

이를 수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 m 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 전체가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입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교수님들이 수험생들에게 고등학생 수준이라면
알법한 배경지식과 단어들을 이용해 수능을 출제하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수험생들이 교수님들이 기대하시는 수준만큼
알지 않아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베이스는 "유기적 독해"입니다.
(여름 방학 때 저는 지문을 어떻게 읽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경지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최후의 선택입니다.

요즘 수험서들 중에 수능 국어를 위한 배경지식을 정리해둔
책들이 오르비 북스 포함 곳곳이 보이는데 여름 방학 때
리뷰를 해보록 하겠습니다. (Youtube 도 시작해보고 싶달ㅋㅋㅋ)